

차례 Содержание

세상에서 제일 약한 요괴 Самое слабое в мире чудовище	19
남극을 찾아가는 요괴 Чудовище, отправившееся в Антарктиду.	42
할머니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Куда же отправить душу бабушки?	66
눈멀 자들의 세계 Мир невидящих людей	88
재산이 많은 것을 숨길 수 없는 세상 Мир, где невозможно утаить своё огромное богатство	106
푸르스마, 푸르스마나스 Пхурсма, пхурсманас	123
초짜악마와의 거래 Сделка с демоном-новичком	144

세상에서 제일 약한 요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가 나타났다.

그 요괴가 세상에서 가장 약하단 사실은 의외로 본인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인간들아, 잠깐! 놀라지 마! 공격하지 마! 난 정말 약해! 절대 때리지 마! 난 정말 약해! 맘먹고 때리면 금방 죽는다고! 때리지 마! 생긴 것만 무섭지, 난 움직이지도 못해! 팔다리, 몸통도 없잖아? 어린아이도 날 죽일 수 있다고! 공격하지 마! 때리지 마! 난 정말 약해!]

어느 날 어느 등산로 옆 공터에 홀연히 나타난 그 요괴의 겉모습만은 사람들의 비명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멀리서 보면 눈처럼 새하얀 피라미드처럼도 보였다. 그것이 숨을 쉬듯 꿈틀거린다는 것과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는 커다란 눈코입이 무서웠을 뿐.

요괴는 덩치가 3미터는 되어 보였는데, 중앙에 양 꼬리가 불쌍하게 처진 외눈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눈 위로는 눈썹 대신 달린 거대한 코가 세 개의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있었다.

눈 아래로 피라미드 하단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입은 정말 압권이었다.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릴 때마다 보이는 이빨들은 제멋대로의 각도로 튀어나와 있어 흉포해 보였고, 혀바닥은 어찌나 긴지, 입안에서 한 바퀴 감은 채로 오돌토돌 솟아오른 검은 돌기들을 꿈틀대고 있었다.

요괴를 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피웠지만, 본인의 말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요괴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인간들아, 놀라지 마! 난 정말 약해!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무서워하다가 괜히 나를 죽이지 말고! 난 정말 너무 약하다니까! 내가 지금 더 무섭단 말이야! 인간들아, 놀라지 마! 난 정말 약해!]

처음 사람들이 신고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경찰이 멀찍이서 총을 겨누었는데,

[자, 잠깐! 그거 총이지? 쏘지 마! 그거 한 방이면 난 죽는다고! 쏘지 마, 제발! 살려줘! 쏘지 마! 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약하다고! 제발 살려줘! 쏘지 마!]

요괴는 안 그래도 새하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더 새하얗게 보일 정도로 공포에 벌벌 떨었다.

끊임없이 자기가 약하단 걸 호소하는 요괴의 모습은 인간들을 조금 침착하게 만들어주었다.

[인간들아! 난 너무 약해서 요괴세계에서 추방당했어! 나도 모르게 여기 떨어졌는데, 난 죽고 싶지 않아! 난 정말 약하다고! 그러니까 제발 공격하지 마! 때리지 마! 난 너희 인간들한테 상대도 안 돼! 정말 약해서 금방 죽는다고!]

요괴의 말이 끝나고 그 말이 증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멀찍이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한 아이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퍽!

[아악! 아파! 아아악! 너무 아파! 돌을 던지면 어떡해! 아아아,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파! 때리지 마!]

돌멩이를 맞은 부위가 금세 벌겍게 부어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요괴가 외눈으로 눈물을 찼끔 흘리는 것이 아닌가?

그쯤 되니 사람들은 모두 침착함을 찾을 수 있었다.

한참을 아파하던 요괴는 진정하고서 인간들에게 호소했다.

[난 정말 약해! 마음만 먹으면 아이라도 날 죽일 수 있다고! 제발 때리지 마! 나를 살려줘! 우리, 공존하자! 난 요능도 하나 가지고 있어! 너희 인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날 죽이지 마! 인간들아, 나와 공존하자!]

움직일 수 없는 요괴는 끊임없이 말로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러는 사이 무장한 군대가 동원되어 요괴의 주변을 에워쌌고, 급한 대로 지역 시장이 인간의 대표로 나서서 요괴와 대화를 시도했다.

또한 서둘러 달려온 방송국에 의해서 그 대화는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으으... 제발 총 같은 거 쏘지 마... 난 한 방이면 죽는다고...으으...]

«너,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난 요괴야! 요괴 세계에서 추방당한 요괴! 넌 너무 약해서 추방당한 거야! 너희 인간들한테 나 같은 건 상대도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때리지 마! 난 진짜 금방 죽어버린다고!]

«그럼 뭐 때문에 여기에 온 거냐?»

[내가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여기로 추방당한 거라니까! 난 이제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해! 그러니까 제발 날 공격하지 마! 나를 살려줘! 인간들아, 제발 우리 공존하자!]

«공존?»

[그래, 공존! 너희 인간들이 나를 살려준다면, 나도 내 요능으로 너희 인간들을 도울 수 있어!]

«요능?»

[그래, 요능! 난 너희 인간에게 젊음을 되돌려 줄 수 있어! 80세 노인을 20대 청년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단 말이야!]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믿을 수 없다!»

[날 봐! 그럼 내 모습은 믿어져? 정말이라고!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 그럼 나를 젊게 만들어 봐! 가능한 것이냐?»

[얼마든지! 근데 그 방법이... 잠깐만, 절대 오해하면 안 돼!]

«뭐가 말이냐?»

[내 말 듣고 절대 오해하지 말고, 공격하지 마! 내가 만약 요능을 발휘해서 너를 젊게 되돌리면,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해!]

«뭐, 뭐라고?»

화들짝 놀란 시장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나자, 요괴가 다급히 말을 이었다.

[아냐 아냐 아냐! 그러지 마! 놀라지 마! 진짜 내 요능의 조건이 그런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지 마! 진짜로 진짜야!]

«어디서 개수작을!»

[아냐! 나처럼 약한 요괴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 진짜로 진짜야! 아니, 오해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제발 때리지 마! 공격하지 마! 난 정말 죽기 싫어! 난 정말 약해!]

«끄응...»

시장은 일단 물러났다. 그리고 방송을 탄 요괴는 하루 만에 세계 최고의 명물이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곧 요괴를 직접 보기 위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 괴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괴의 말이 정말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약한 요괴가 거짓말을 왜 해?»

«일부러 약한 척하는 것일 수 있어!»

«약한 척해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한 명 잡아먹고 도망이라도 가려고? 무장 군인들이 에워싸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든 곳에서?»

«어쩌면 일부러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한번에 몽땅 잡아먹을 속셈일지도?»

세계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한가지 확실한 건, 요괴의 요능이라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점이었다.

국가는 저 요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사람들은 요괴의 요능이 사실일까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때 한 명의 지원자가 등장했다.

«내가 한번 먹혀보겠다!»

그는 60대의 노숙자 김 씨였다. 그는 가족도 가진 것도 없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버릴 대로 버린 몸뚱이 하나가 전부인 자였다.

«만약 내가 다시 젊어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한번 먹혀보겠다!»

공권력은 말리지 않았다. 어찌면 자살 방조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전 세계적 호기심의 힘이 그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자! 나를 젊게 만들어봐라!»

요괴의 앞에 선 노숙자 김 씨는 벌벌 떨며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알았어! 근데 인간들아, 절대 놀라지 마! 절대 총 쏘면 안 돼! 난 한 방에 죽는다고! 절대 공격하지 마! 절대로!]

단단히 말해놓은 요괴는 그 큰 입을 더 크게 벌렸다. 곧 감겨 있던 기다란 혀바닥이 쪽 늘어나 노숙자 김 씨를 확 휘감았다.

«으아악!»

그러고는 곧장 입안으로 쑥,

우직! 오도독! 오독! 찹찹! 오도독! 찹찹! 오도도독!

«까아아악!»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무장 군인들은 본인도 모르게 총구를 겨눴다.

요괴가 입안에서 김 씨를 아주 꼭꼭 씹어 먹었던 것이다.

[꺼억!]

요괴는 잘 먹었다는 듯이 만족스러운 트림을 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고, 군인들은 총을 쏘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자, 잠깐! 잠깐만! 기다려! 잠깐!]

요괴가 인상을 쓰며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괴의 뒤쪽, 그냥 벽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 여겼던 그곳에 요괴의 항문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요괴는 곧 항문으로 인간을 배출했다.

«쿨럭! 쿨럭! 하악 하악 하아... 뭐, 뭐야?»

항문으로 나온 이는 바로 노숙자 김 씨였다. 20대의 젊은 모습을 하고 있는. 본인의 몸을 살피던 노숙자 김 씨는 놀란 얼굴로 소리쳤다.

«저, 정말이다! 정말로 젊어졌어! 정말이었어! 정말로 20대 때의 내 몸이야!»

마치 본인의 새 몸을 테스트라도 하듯이 마구 뛰어다니는 김 씨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빛을 흔들리게 했다.

[그것 봐!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내 요능은 원래 이렇게 부리는 거야!]

10분이 넘도록 아무런 이상 없이 뛰어다니는 김 씨를 본 누군가가 슬금슬금 앞으로 나섰다.

«나, 나도 해줄 수 있는가?»

[얼마든지! 난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니까 인간들아, 나를 공격하지 마! 나를 때리지 마! 나와 공존하자고! 인간들아, 나와 공존하자!]

그때부터였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요괴는 인간과의 공존에 성공했다. 요괴의 앞에 인간들이 끝없이 줄을 섰다.

처음 국가는 요괴를 소유하고 관리하려 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요괴의 요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국가는 많은 이득을 얻었다. 요괴는 정착한 산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관광 수입만으로도 국가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났다.

산 주변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감히 전 세계 부동산 역사를 통틀어도 전례가 없을 지경이었다.

요괴 이용에 조건은 다 하나, 선착순으로 줄을 서는 것이었다. 그 대신 한 사람당 평생 한 번만 줄을 설 수 있었다. 평생 한 번의 젊어질 기회를 버리는 대신 자기 차례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고액을 챙기는 이들도 있었다. 직접 와서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단위가 넘어간 대기번호는 점점 체계적으로 경제 상품화가 되어 갔다. 온 가족이 찾아와 갓난아기까지 대기 줄에 등록하는 일종의 재테크가 벌어지기도 했고, 차례를 사고파는 걸 연결해주는 기업마저 생겨났다.

요괴 하나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다. 요괴의 말대로 요괴 하나와 인류 전체의 공존이 명백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요괴가 만 명쯤의 사람들을 젊은 시절로 되돌려놨을 때 사고가 하나 발생하고 말았다.

[아, 아떨싸!]

«뭐, 뭐야? 왜 뺏어내질 않는 거야?»

[이, 인간들아! 실수야! 요능이 실패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요능이 실패했어! 방금 삼킨 인간이... 죽어버렸어! 미안해! 때리지 마! 제발 공격하지 마!]

«뭐야?»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실패가 있을 줄이야! 만 명이 나 성공했는데 이제 와서?

끊임없이 이어지던 요괴의 요능을 처음으로 멈춰 세웠다. 혹시 이제야 요괴가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실패라니? 어떻게 된 것이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절대 아니야! 믿어줘! 제발 때리지 마! 공격하지 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앞으로도 또 실패할 수 있단 이야기냐?»

[그, 그럴지도... 근데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미안해! 제발 죽이지 마! 응? 제발 살려줘!]

«끄응... 실패확률은 얼마나 되는 거냐? 그동안 만 명이나 잘해놓고 왜 갑자기?»

[확률은 잘 몰라! 아마 만 명에 한 명 정도로 또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 미안해!]

«만 명에 한 명...»

어쨌든 간에 만 명에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 인류는 요괴 이용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요괴는 이미 경제의 거대한 중심축이 되어 있었다. 요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차례를 기다린 사람들도 많았고, 비싼 돈 주고 차례를 산 사람들도 많았고, 재테크로 차례를 챙겨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 요괴 관련 산업으로 돌아가는 기업들은 어쩔 것이고, 국가의 엄청난 요괴 관련 수입은 어쩔 것인가?

요괴의 요능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사망자가 나왔지만, 인류는 애써 그 점을 무시했다.

단, 사망자의 가족만 제외하고 말이다.

«이 요괴 놈아!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

[오아아아! 살려줘! 미안해! 오아아아! 죽기 싫어! 제발!]
칼을 들고 설치는 인간에게서 요괴를 지켜준 건 다름 아닌 같은 인간들이었다.

«막아! 잡아! 저놈을 막아!»

«아아악! 놈! 이 요괴 놈아!»

«칼 뺏어! 막아! 막으라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끝내는 수갑까지 채워진 채로 끌려나가야 했다. 사람들은 식은땀을 닦았다. 세계에서 가장 약한 요괴가 칼에 맞아 죽어버리길라도 했다면...

이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에게는 그 어떤 귀빈보다 더 삼엄한 경호가 붙었다. 요괴에게 줄을 설 때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했고, 거기에는 어떤 금속류도 통과될 수 없었다. 천사가 내려왔어도 이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 극진한 대접 속에 요괴는 다시 활발하게 요능을 부렸다.

[오아아! 실패! 실패야! 미안해! 또 실패했어!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5천 명째 정도에서 요능 실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또다시 당황했지만, 국가가 발 빠르게 사망자의 가족들을 찾아가 보상해줌으로써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복수하는 걸 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 명에 한 명꼴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미안해! 사실은 이렇게 쉬지 않고 요능을 발휘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정말 미안해! 죽이지 마! 때리지 마!]

«끄응...»

5천 명에 한 명이 사망하게 되었지만, 요능 부리는 걸 멈추게 할 순 없었다. 오히려 저번보다 더 빨리 재개되었다.

[오아악! 또 실패! 어찌지? 어찌지? 인간들아, 미안해! 살려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

이번에는 3천 명째 정도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가에선 일단 이 문제를 고민해보기로 했다. 요괴와의 공존을 멈춰야 하는 걸까? 하지만 국가의 고민보다 더 힘이 센 건 인간의 목소리였다.

«빨리 요괴 이용을 재개하라! 언제까지 멈춰 있을 것인가?»

«멈추긴 뭘 멈춰! 내가 이 차례권을 얼마를 주고 산 줄 알아? 이거 너희들이 보상해 줄 거야? 어!»

«이제야 겨우 순서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고! 죽는 게 무서워서 겁먹은 놈들은 알아서 빠지라고 그래! 감수할 사람들만 차례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망자가 나오면 국가가 알아서 숨겨야지! 사망자 소식들 때문에 차례권의 가격이 얼마나 떨어진 줄 알아?»

«만약 요괴 이용이 멈춰질 시 국가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을 수치화하자면...»

이제 수백 명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나와도 요괴 이용은 멈춰지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했다.

요괴의 주변으로 핵 방공호급의 안전을 자랑하는 건물이 지어졌고, 요괴의 몸은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방탄 설비로 보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최고의 경호팀들이 물 샅 틈 없이 철저히 요괴의 안전을 지켰다.

이제 요괴의 요능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검사를 받은 뒤, 다 벗은 채로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면 관리자가 순서대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 포박해 요괴 앞에 진상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안전했다.

수백 명의 인간을 삼켜 먹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했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인간을 삼켜 먹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요괴였다.

Слова и выражения к тексту

요괴 чудовище
의외로 неожиданно
본인 сам, сама, само, сами
공격하다 нападать
때리다 бить, избивать
생긴 것 внешность
무섭다 страшный
몸통 туловище, тело
등산로 прогулочная дорога
공터 пустырь
홀연히 вдруг
비명 крик, вопль
새하얗다 белый
피라미드 пирамида
숨을 쉬다 дышать
꿈틀거리다 шевелить[ся]
꼬리 (=눈꼬리) края (глаз)
처지다 висеть
외눈 один (единственный) глаз
콧구멍을 벌름거리다 шевелить, подёргивать ноздрями
하단부 нижняя часть, нижний участок
압권 *образн.* кульминация
제멋대로 *здесь:* хаотично
각도 угол
튀어나오다 выскакивать *здесь:* расти (*о клыках*)
흥포하다 жуткий, страшный
혓바닥 язык
오돌토돌 솟아오른 검은 돌기들 противные чёрные сосочки
난리를 피우다 устраивать беспорядок
끊임없이 непрерывно
괜히 просто так, без причины; напрасно
신고하다 заявлять (*в полицию*)

총을 겨누다 направить винтовку (автомат, пистолет)
 쏘다 стрелять
 방 *счётн. сл. для выстрелов*
 살려주다 спасать
 호소하다 взывать (*к кому-л., чему-л.*), призывать
 침착하다 быть спокойным
 추방당하다 быть изгнанным
 상대가 안 되다 невозможно противостоять (*т. е. силы
 неравны*)
 증명되다 быть доказанным
 돌멩이 камень, камешек
 던지다 кидать, бросать
 벌겋게 부어오르다 краснеть и опухать
 고통스럽다 мучительный
 찰끔 стружкой; капельками
 진정하다 успокаиваться
 마음 먹다 хотеть
 공존하다 сосуществовать
 설득하다 уговаривать
 무장하다 вооружаться
 동원되다 быть мобилизованным
 에워싸다 окружать
 대화를 시도하다 попытаться поговорить
 방송국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생중계 прямой эфир
 요능 волшебная сила (*у чудовища*)
 가능하다 возможный
 절대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오해하다 неправильно понять
 잡아먹다 сожрать
 화들짝 놀라다 испугаться
 다급히 быстро; срочно
 개수작을 부리다 хитрить; обманывать; городить чушь
 거짓말 ложь

명물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ь
순식간 мгновение
일부러 нарочно
몽땅 полностью
속셈 задняя мысль
확실하다 ясный, определённый
매력적이다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й
고민하다 мучиться
궁금하다 *в знач. сказуемого*: любопытно
지원자 доброволец
등장하다 появляться, выходить (*на сцену, арену и т.п.*)
먹히다 быть съеденным
노숙자 бездомный
전부 всё, полностью
공권력 полномочия (*у власти*)
자살 방조 доведение до самоубийства
호기심 любопытство
훨씬 значительно; namного
벌벌 떨다 сильно дрожать
질끈 감다 крепко закрыть глаза
감기다 быть смотанным
휘감다 сматывать
총구를 겨누다 направлять ружьё
트림 *отрыжка*
망연자실하다 растеряться
심각하게 серьёзно
인상을 쓰다 сморщиться
힘을 주다 напрягаться
항문 заднее отверстие
배출하다 выпускать
흔들리다 дрожать; качаться
요능을 부리다 использовать способность
아무런 никакой
줄을 서다 вставать в очередь, выстраивать очередь